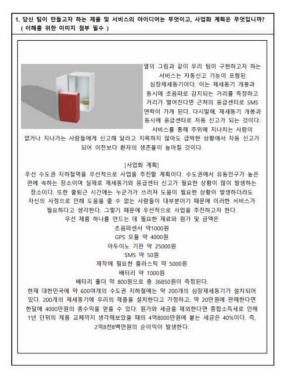
UMC 지원서 서류 20221250363 윤서진





1학년 때 창업메이커톤에 참여해 수상했었습니다.

경영학부 22학번 두 명과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2명이 참여했습니다. 다들 첫 대회이고 새내기 초반이라 아는 것이 없어 아이디어만 정한 뒤 대회진행이 안 됐었습니다. 일단 대면회의를 하며 진행해야겠다 싶어 만나서 제품에 대해 회의를 많이 하고 제품의 대상, 예산,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하고 다른 소학동기와 3D 모델링과 코딩을 공부하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.

첫 팀플이라 시간을 투자하지만 발전하지 않을 때 팀원들이 열정을 잃어갔었습니다. 그때마다 팀원들이 열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들과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.

또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발표물을 만들거나 발표를 자주 했습니다.



이번 여름 방학 때 제대로 시작한 알고리즘 공부를 통해 최대한 꾸준히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.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해 러닝메이트가 있어 귀찮거나 나태해질 때가 있더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

아직 팀 프로젝트 경험은 많이 없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홍보공모전 등에 팀으로 참가할 때 공모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자문을 구하는 일과 일정조정, 계획서 작성 등을 도 맡아했었습니다. 꼭 이번 기회를 통해 팀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.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역할 분담하는데 자신있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